

SUNBO FAMILY

vol.55

2008.08.15

since 1986

SUNBO SUNBO Ind Co.,Ltd.

TEL 051. 261. 3454 www.sunboind.co.kr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관내 5개소 무료급식 지원을 통한 지역봉사활동

우리 회사는 지난달 16일 두송종합복지관 외 관내 5곳의 복지관에 무료 급식을 지원했다.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는 부산 사하구 행정발전위원회 등 지역경제인 연합 소속으로 이전에도 계속해서 무료 급식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매달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에 특별 지원을 하게 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평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못했는데 이번 행사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무료급식 행사에서는 식사 외에 무더위를 썩 가시게 할 시원한 수박과 떡 등이 제공되었으며, 특히 봉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무료 급식행사 지원에 뜻을 함께 했다.

이날 식사를 하던 할머니 한 분은 "무더운 날 시원한 수박이 생각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무료 급식도 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무더위가 가신 것 같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작은 마음을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성동그룹 정흥준 회장 당사 방문



지난달 14일 성동그룹 정흥준 회장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정 회장님은 우리 회사 설계실 및 생산현장을 둘러본 후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선보의 높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차별화 된 시스템으로 경쟁력 강화, 최종목표 달성에 주력"



우리 회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에서 열린 하반기 워크샵에서 대표이사 와 상임고문을 비롯한 부서장급이상 임직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상반기 실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업계획과 경영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워크샵을 통해 참석자들은 타 부문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발표를 공유함으로써 전사 전략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적 활용을 위한 현안사항을 도출하는 등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됐다.

특히 생산성 10% 향상, 생산리드타임 15% 단축, 제품완성도 99% 달성 및 '견적 및 실행원가 연동 시스템' 조기 구축에 따른 경쟁사와 차별화된 원가관리 시스템 구현 등으로 회사 중장기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이사는 강평을 통해 1년 전에 비해 많은 것을 혁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준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빠른 변화를 SPEED 경영과 최하위 직원까지 목표를 공유하고 성과달성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더욱 합리적인 능력과 업적 위주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조직의 효율을 도모하고 우리 회사가 달성하길 원하는 공통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구현하고자 하는 선보 인적 자원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열렸다.



부산기계공고 창의관 내 산학협력 홍보실 선보전시관 개관

부산기계공고는 우리회사 대표이사가 산학협동자문위원 겸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금번 창의관 신축에 맞춰 창의관내 산학협력 홍보실을 마련하고 이를 참여산업체 홍보와 직업진로센터 및 학생 진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스를 마련하였으며 우리회사는 30개 산업체와 함께 참여 하였다.

또한 개관식에는 설립자 였던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및 국회의원 10여분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다.

우리회사는 향후에도 학교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21세기를 선도 할 창의적인 기술영재를 육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경영혁신

선보혁신NEWS

5행의 생활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현장에서 일을 할 때 5행의 생활화가 요망되고 있다. 5행이란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의 5단계를 일컫는다.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고 장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물품의 분실을 줄이는 것이 요구되는 정리의 단계. 어지러운 작업장이 아닌 누구라도 필요한 물품을 쉽고 빠르게 찾아서 업무절차 전체가 간소화 되는 정돈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필요수의 과부족을 없앨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도 하다. 그 다음인 청소단계에서는 분량, 고정 발생원을 줄이고 이물, 부식, 흔들림, 누구, 누유 등 경미한 결함들이 제거할 수 있다. 작업장의 환경이 청결하면 재해가 줄어들고 공해요인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습관화 한다면 직원들의 부주의를 줄이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데 용이하며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한 순간의 노력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품질향상, 원가절감, 그와 더불어 안전, 환경 개선과 능률향상의 5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Sunbo-5S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자!

1주차	정리	우선 불필요한 것을 버리자	자원, 물자, 공간의 낭비 배제 신발, 캐비닛의 낭비 배제 재공, 재고의 삭감	중요도
2주차	정돈	물건 두는 방법 표준화 3정 정도 및 표시관리	작업준비, 전행시간 단축	중요도
3주차	청소	설비의 청소점검	생산 리드타임 단축	중요도
4주차	청결	말끔한 직장 유지	직업능력 향상	중요도
365일	생활화	5S의 유지관리	정결한 직장 환경 유지	중요도

● 3정(定)
1. 어디에 : 정 위치(定位置) - 장소표시
2. 무엇이 : 정 품(定品) - 품목표시
3. 몇 개 : 정 량(定量) - 양 표시

● 사람 : 안전한 작업, 올바른 작업, 올바른 계속 및 조정
● 설비 : 정도 유지, 소모품의 수명 연장, 공해 규제 준수
● 제품 : 품질 배제, 품질 수명의 향상, 고객 신뢰 확보

안전

원가절감

자재가 낭비되는 현장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회사 경영에 악조건이 많은 때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뚝뚝 뭉쳐 위기를 대처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현장에는 일부 자재가 낭비되는 현상이 목격되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여 조금만 자재 하나 하나를 내 몸처럼 아끼고 절약합니다.



최홍렬 상무의

이 한권의 책

동꽃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무더운 날씨에 책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루에 몇 페이지라도 읽다보면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으며, 시내 도서관의 냉방시설도 잘 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부모님과 자식이란 것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으로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의 이야기로 구수한 사투리로 재미도 있으면서 어머니의 자식사랑과 아들의 헌신적인 노모사랑에 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다가 올 늙음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무엇이 부모님을 위한 것인지, 자식의 도리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동꽃

감자 놓던 뒷밭 언덕에/연분홍 진달래 피었더니/방안에는/목은 된장 같은 동꽃이 활짝 피었네./어머니 옮겨 다니신 걸음마다/검노란 동자국들.
어머니 신산했던 세월이/방바닥 여기저기/이불 두 채에/고스란히 담겼네./어릴 적 내 봄날은/보리밭 밀밭에서/구릿한 수확냄새로 풍겨났지./어머니 창창하시던 그 시절 그때처럼/고색창연한 봄날이 방안에 가득 찼네.
진달래꽃/몇 잎 따다/깎아 놓아야지



회사 소식

여름이벤트

제 2회
선보 여름휴가 사진공모전

무더운 날씨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회사 후원 사진동호회 주관으로
휴가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휴가 기간동안 즐거운 여행 다녀 오시고
즐거웠던 추억을 한장의 사진으로 남겨
경품도 탈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모는 선보가족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며 개인당 3편의 출품이 가능합니다.

- 공모기간 : 2008년 8월 31일 까지
- 공모대상 : 여름에 관련된 모든 사진
- 대상 1명 -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 우수 2명 - 문화상품권 만원권 5장
- 가작 5명 - 영화관람권 2매

| 후원 | 선보공업주식회사
| 주관 | 선보사진동호회



회사 소식

칭찬릴레이 뱃지 전달

“내가 칭찬릴레이 주인공”

우리 회사는 평소 타 직원의 모범이 되고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드는데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뱃지를 제작하고, 증정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행사의 주인공은 매달 사보를 통해 소개되는 칭찬릴레이의 주인공들로, 평소 업무태도나 조직문화 능력이 우수해 다른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제조업 중에서도 철을 다룬다는 회사의 특성 때문에 자칫 삭막해지고 서로간의 관계도 딱딱해질 수 있는 회사분위기를 칭찬릴레이 직원들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웃음과 단결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앞으로도 칭찬릴레이 주인공들이 더 많아져서 보다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해본다.



회사 소식

영도공장

재활용으로 만든 ‘재생의 공간’

우리 회사 영도공장의 옥상에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다. 햇볕이 따가운 여름이면 그늘 하나 없고, 점심시간이나 휴식이 필요할 때 마땅히 쉴 곳이 없었던 직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직원들의 잠깐의 즐거운 휴식공간을 위해서 옥상에 조그만 노력으로 이러한 공간을 만든 이청수 차장. 평소 화분 기르는 것을 즐기고 다육식물과 야생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청수 차장은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그는 “처음엔 그저 잠깐 쉴 요량으로 의자 하나씩을 가져다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쉴 수 없어서 조그만 평상을 만들었다. 직원들의 조그만 손길이 만들어낸 평상과 작은 목침 등이 있는 옥상의 휴식처는 이제 영도 식구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고 말한다. 영도 공장 직원의 안식처 외에도 이 곳은 업무상으로 들린 검사관이나 감독관들이 직원들과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기도 하다.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하늘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공간에서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준다.

직원들과 이청수 차장이 함께 만든 평상과 목침, 햇볕을 가려주는 발 외에도 옥상 휴식터에는 조그맣고 커다란 화분들이 약 60개가 있다. 이청수 차장은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에 직접 기르던 화분을 옮겨놓기도 하고, 직접 야생화를 화분에 담아 오기도 했다. 동백과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화분들이 많은 것이 이 공간의 특징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죽어가고 말라가던 화분들을 옥상으로 옮겨와 잘 관리한 덕에 작은 정원을 방불케 한다. 햇볕과 바람이 있는 곳에서는 잦은 손질 없이도 잘 자라는 다육식물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볼거리를 선물한다.

정성껏 키운 화분을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하며, 직원들이 보다 편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이청수 차장은 이 작고 아기자기한 공간의 ‘쉼터지기’다. 그의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만든 이 공간은 이제 단순한 쉼터가 아닌 자칫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 현장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생생현장의 소리

영도공장 오성경반장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는 진정한 '선보인'



어느 작은 집단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몇 사람이 있다면 그 작은 집단은 비록 그 순간에는 작을지 몰라도 멀리 내다봤을 때는 그 어떤 집단들 보다 더 크고 돈독한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다. 반면 집단이라고 불리기에 커다란 집단이 있다고 해도 그저 집단의 장이 말하는 것만을 따르고 수동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그 집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까운 미래에 끝이 보일 것이다. 이처럼 무언가에 임할 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회사라면 그 만큼 그 회사의 미래가 밝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말수가 적고, 말투가 통명스러울지언정 그가 선보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오성경반장과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회사의 발전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몸담고 있고, 자신이 그 속에서 맡은 일이 있는 순간, 순간에 회사의 발전 혹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발전은 물론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노력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것. 눈 앞의 단순한 이익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허다한 요즘에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는 그 외에도 사람들과의 업무 처리 호흡을 중요시 한다.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한 발 앞서 알고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립 등인데 이것은 단순하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호흡해야 완성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한다. 그런 그도 일할 때 아쉬움이 남는 점은 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여름철이 되면 비가 자주 내리는데 그것에 대한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비가 그친 후 물청소를 해야 하며, 비가 내리는 중에는 사실상의 완전한 작업을 하기가 힘들다" 라고 말하며 아쉬운 탄식을 내뿜는다. 아쉬운 점을 극복하고 다소 어려울수도 있는 환경에서 그가 가진 인성만큼이나 묵묵하게 제 자리를 지키면서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선보의 미래가 아주 밝게 보인다. 선보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 어쩌면 그는 이미 뼈속부터 선보의 일부가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선보 칭찬 릴레이

제 29호 주인공



풍부한 경험으로, 노련미와 세심함을 동시에!



Q 칭찬 릴레이 29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처음엔 놀랐지만 그 후에 든 생각은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은데 칭찬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요즘같이 더운 날은 모두가 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누가 누구보다 더 잘하고 이런 것 보다는 다 같이 잘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부족한 게 많은데도 추천을 해주신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만큼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일을 맡긴 사람들의 마음으로 일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일을 대충하면서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며, 끝나자마자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긴 입장에서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족스러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요. 흔히 그걸 주인의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요. 일단 제가 맡은 일은 제 손을 떠날 때까지 제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Q 알아면서 힘든점은?

작업 환경도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좋고, 일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재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이뤄지기 때문에 겪는 힘든 점이 많죠. 제때 자재가 공급되면 계획을 짜서 철야작업을 하지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깐 낱기일이 가까워지면 늘 그럴듯 거의 밤을 새다시피 작업을 해서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여름에도 많은 직원들이 휴가를 반납할 정도니까요,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힘든 점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Q 30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주세요.

제가 칭찬하고 싶었던 분들 중 한 분이 명성산업의 유상준 용접사예요. 부지런한 거야 말할 것 없지만 능동적인 업무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소신있는 판단아래 해야 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요. 그러한 모습들에서 배울 점이 참 많아요. 많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칭찬릴레이의 취지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틀린그림찾기

5개



축하합니다!

본사 생일	구매부 최동배 0805 서성식 0806
생산관리 권남현 0809 임영삼 0812 신성인 0819	설계부 고상현 0806
생산부 배희진 0821	영업부 이황우 0806
생산부(순해) 김희규 0810	관리부 이동하 0806
생산팀 유문열 0828	사외물류팀 류승진 0820
생산3팀 이영근 0813	구평공장 생일
고객지원팀 한진우 0826	생산관리 조영화 0806 김광욱 0827
영업부 유우성 0811 김미란 0824	생산부 이태욱 0820
구매부 김동관 0821 박찬일 0820	임원 강보영 0809
입사기념일	구매부 이동준 0817
품질보증부 이혜자 0801	설계부 민병철 0821
고객지원팀 노재태 0802	영도공장 입사기념일
생산관리 임현웅 0807 최경호 0813	품질보증 김영호 0824
생산3팀 유지중 0802 김정민 0807 이은식 0816	생산관리 표종원 0824

SUNBO FAMILY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맥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